

브라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1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 의견	12

I. 일반개황

면적	8,515천 km ²	G D P	23,495억 달러 (2014년)
인구	203백만 명	1 인 당 GDP	11,629달러 (2014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Real (R)
대외정책	실리주의	환율(달러당)	2.16 (2014년 평균)

- 브라질은 중남미 전체 GDP 40.5%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 대국이며, 농업 5.6%, 제조업 23.4%, 서비스업 71%로 산업구조가 다변화되어 있음.
- 커피, 대두, 설탕, 밀 등 농작물 생산량이 풍부한 세계적인 식량 수출국이며, 보크사이트, 금을 비롯한 광물자원과 석유자원 매장량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음.
-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UNSC) 상임이사국 등록을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 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f
경제성장률	3.9	1.8	2.7	0.1	-3.0
재정수지 / GDP	-2.5	-2.6	-3.1	-6.2	-7.7
소비자물가상승률	6.6	5.4	6.2	6.3	8.9

자료: IMF.

□ '14년 저성장에 이어 '1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 전망

- 높은 가계부채 비율에 따른 소비부진, 유가하락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및 국제신인도 저하로 인한 투자위축 등으로 2014년 경제성장률은 0.1%를 기록함.
- 브라질은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2014년 63.5%)이 높은 내수 중심 국가임. 기준금리가 인하되던 2011~12년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후 기준금리가 다시 인상됨에 따라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이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음.
- 2015년에는 소매판매 감소 등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건정성 제고와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 재정·통화정책의 영향으로 -3.0%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분기별 경제성장률(전년동기 대비)의 경우 2014년 2/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5년 2/4분기 -2.6%를 기록함.

□ '14년 기초재정수지도 적자전환에 이어 재정수지 적자 규모 확대

- 브라질은 각종 면세제도 실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 정책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2014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축소, 대선에 대비한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6.2%를 기록하며 전년(3.1%) 대비 큰 폭으로 악화됨.

- 또한, 2014년에는 이전까지 흑자를 유지하였던 이자지급 등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도 적자 전환되어 GDP 대비 -0.6%를 기록함.
- 재정책확대책 발표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긴축과 증세에 대한 노동계의 저항으로 제반정책의 의회비준 지연, 세수감소 등으로 2015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7.7%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 브라질 중앙은행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14.25%)까지 7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적극적 긴축적 통화정책을 통해 2016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4.5% 수준까지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준금리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헤알화의 가파른 가치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상승, 페트로브라스의 가솔린 가격인상(2014년 11월), 전기요금 인상(2015년 1월) 등으로 2015년 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 중장기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는 8.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낮은 투자율 등으로 경쟁력 저하

- 브라질 경제는 2014년 기준 농업 5.6%, 제조업 23.4%, 서비스업 71.0%로 구성되어 있어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GDP 대비 투자 비중은 20%(2014년 기준, 중남미 평균 22.6%)에 불과하며, WEF 글로벌경쟁력지수 인프라 부분에서 144개국 중 76위에 그치는 등 인프라 수준도 열악하여 제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거대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 보유

- 브라질의 GDP 규모는 2014년 기준 세계 7위, 중남미 1위(중남미 전체 GDP의 40.5% 점유)이며,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62.5%로 거대 내수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약 2억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와 14세 이하 인구 비중은 각각 61.8%, 33.3%인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9%에 불과하여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 농작물, 광물, 석유 등 풍부한 자원 보유

- 커피(세계 1위), 대두(세계 1위), 설탕(세계 3위), 밀(세계 3위), 면화(세계 6위), 쌀(세계 10위) 등 농작물 생산량이 풍부하여 세계 주요 식량수출국임.
- 보크사이트, 금, 철광석, 망간, 니켈 등 30종에 이르는 광물자원과 함께 석유 등 에너지자원 매장량도 풍부함.
 - 2015년 BP(British Petroleum)의 세계에너지통계에 따르면 2014년 브라질의 석유 매장량은 162억 배럴로, 중남미 국가 중 베네수엘라에 이어 2위 규모임.

다. 정책성과

□ 관료주의 및 정부부패는 기업에 추가적 비용 초래

-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과중한 세금부담, 경직적 노동법 등의 관료주의는 기업 영업활동에 경제적 부담('Brazil Cost')으로 작용함.
- 2015년 10월 발표된 세계은행의 기업경영여건 평가(Doing Business)에서 브라질은 189개국 중 116위로 콜롬비아(54위), 멕시코(38위), 칠레(48위) 등 주요 중남미 국가 대비 낮은 순위를 기록함. 특히, 세금납부(178위), 창업(174위), 건설허가 취득(169위)의 경우 최하위권을 기록함.

□ 정부의 비효과적 재정정책으로 대외신인도 저하

- 호세프 대통령은 재선 확정 이후 2014년 11월 시장친화적 성향의 조아킴 레비(Joaquim Levy)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하고 2015년 9월 긴축과 증세를 골자로 한 재정책확충대책을 발표 하는 등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주력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와 집권 노동자당(PT)이 현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고, 노동계 등의 강한 반발로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제반정책 입안들이 의회에서 표류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2016년 기초재정수지 목표치를 수정(7월 +0.7% → 8월 -0.3%, GDP 대비)하고, 재정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2015년 9월 S&P는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인 BB+로 강등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f
경 상 수 지	-52,480	-54,246	-81,108	-103,981	-72,803
경 상 수 지 / G D P	-2.8	-3.5	-3.8	-4.4	-4.1
상 품 수 지	29,807	19,431	2,400	-6,248	12,475
수 출	256,040	242,580	242,034	224,645	196,114
수 입	226,233	223,149	239,634	230,893	183,639
외 환 보 유 액	350,356	369,566	356,214	360,965	365,886
총 외 채 잔 액	522,000	575,758	649,960	705,000	737,900
총 외 채 잔액 / GDP	19.9	23.8	27.2	30.0	43.2
D S R	22.2	25.7	26.3	27.7	32.7

자료: IMF, EIU, IIF, OECD.

□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입규모 감소로 상품수지 흑자 전환 전망

- 철광석, 대두, 커피 등 1차 상품 수출비중이 높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 호조에 힘입어 2012년 상품수지 흑자는 194억 달러를 기록함.

- 2013년에는 강수량 부족에 따른 커피생산 감소, 인프라 투자를 위한 원자재 수입 확대로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24억 달러를 기록함.
- 2014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중국, 아르헨티나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상품수지는 적자로 전환되어 62억 적자를 기록함.
- 2015년에는 내수침체, 수입물가 상승으로 수입규모 축소 폭이 수출규모 축소 폭을 초과함에 따라 125억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됨.

□ 상품수지 흑자 전환으로 경상수지 적자 폭 소폭 축소 전망

- 상품수지 흑자에도 소득수지 및 서비스수지 적자로 2008년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2013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3.4%를 기록함.
- 2014년에는 상품수지가 적자 전환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4.4%로 확대되었고, 2015년에는 상품수지 흑자 전환으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소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은 풍부한 편이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은 과중

- 2014년 기준 브라질의 외환보유액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3,610억 달러로 월평균 수입액의 12개월에 달하는 규모이며, 풍부한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버퍼 역할을 하고 있음.
- 반면 재정적자 누적 등으로 정부 조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채가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4년 3.1조 헤알을 기록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도 60.4%로 과중한 편에 속함.
- 다만, 공공부채 중 외채비중이 7%로 낮고, 93%가 국내채무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외환유동성 사태 발생 예방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페트로브라스 부정부패 스캔들 등으로 정부 지지율 급락

-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Petrobras)가 2005~14년 동안 건설사업 입찰 등 거래 과정에서 계약금을 부풀려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주요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전달하였다는 혐의의 부패 스캔들이 발생함.
- 2014년 3월 연방검찰이 페트로브라스 돈세탁 및 횡령사건 수사에 착수하였고, 동년 5월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하였고, 11월에 대형건설사 임직원 27명을 구속 수감하였음.
- 2015년 3월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발표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조사 승인 대상에 룰라 전대통령과 호세프 대통령은 제외되었으나, 연립여당 소속의 하원의장 등 주요 정치인이 다수 포함되었음.
- 또한, 호세프 대통령이 수사대상 기간에 페트로브라스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만큼 동 부정부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것 이라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임.
- 페트로브라스 관련 집권여당의 불법 뇌물수수 의혹에 대선 불법자금 의혹, 경기침체, 높은 물가상승률까지 더해짐에 따라 호세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5년 10월 기준 8.8%로, 이는 역대 브라질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준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대규모 대통령 탄핵 시위 발생

- 경기침체, 높은 실업률 등으로 사회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페트로브라스 부정부패 스캔들에 따른 여당 등 정치권에 대한 반발로 대규모 탄핵 시위가 브라질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순수 시민주도의 평화적 시위형태가 유지되었으나, 2015년 8월 시위에서는

파울리스타에 34만명, 마나우스에 7천명, 브라질리아에 2.5만명 이상이
운집한 것으로 추정됨.

□ 소득불평등, 빈곤 등은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브라질은 소득 상위 10%가 국부의 41.8%(2013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니계수도 52.9(2013년)로 집계되어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은 편에 속함.
-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 등으로 일소득 2달러 이하 인구 비중은 2001년 24.3%에서 2011년 11%, 2013년 9.9%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소득불평등과 함께 빈곤은 여전히 강력범죄, 대규모 시위 등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2014-15년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 Index)에서 브라질은 144개국 중 범죄, 폭력으로 인한 사업손실 124위, 조직범죄 119위로 낮은 순위를 기록함.

3. 국제관계

□ BRICS 국가들과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 강화

- 브라질은 중국,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과 함께 BRICS 회원국으로 정상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협력관계를 공고화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의 경우 브라질의 최대 교역대상국(총수출의 18.5%, 총수입의 16.5%)인 동시에 주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함.
- 2014년 7월 개최된 제6차 BRICS 정상회의에서 신개발은행(NDB) 설립에 합의하였고, 2015년 7월 중국 상하이에서 공식 출범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낮은 연체비율 등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

- 브라질은 외채위기로 6차례(1961, 1964, 1983, 1987, 1988, 1992년) 파리 클럽의 채무재조정을 경험하였으나, 2005년 12월 IMF 차관 및 파리클럽 채무 잔액을 조기상환하면서 대외신인도가 제고됨.
- 2008년 2월에는 외환보유액이 외채보다 많은 순채권국으로 전환됨.
- 한편, 2015년 6월 말 기준 OECD회원국의 ECA 승인금액 298억 달러 (단기 61억 달러, 중장기 237억 달러) 중 연체액은 1.4억 달러로 0.5%에 불과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4등급	(2015. 10.)	3등급	(2014. 10.)
S&P	BB+	(2015. 9.)	BBB-	(2014. 3.)
Moody's	Baa3	(2015. 8.)	Baa2	(2014. 9.)
Fitch	BBB-	(2015. 10.)	BBB	(2014. 7.)

- OECD는 2007년 이후 브라질에 3등급을 부여해왔으나, 2015년 10월 거시 경제지표 악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라 4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함.
- 재정건전성 악화 및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2015년 9월 S&P는 브라질 국가신용도 등급을 투자부적격 등급인 BB+로 강등하였고, Moody's와 Fitch도 2015년 중 한차례 하향조정 조치를 취하였음.
- Fitch, S&P 모두 동국의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추가 하향조정 조치 가능성이 존재함.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59년 10월 31일 (북한과는 2001년 3월 9일 수교)
- 주요협정 : 무역협정(1963), 문화협정(1967), 이중과세방지협정(1991), 과학 기술협력협정(1992), 투자보장협정(1995), 사증면제협정(2001), 원자력협력협정(2005), 국방협력협정(2006)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 · 브라질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 출	10,286	9,688	8,922	자동차부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수 입	6,085	5,573	4,907	철광, 식물성물질, 곡실류
교역규모	16,371	15,261	13,829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4년 기준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14위 수출상대국이며, 중남미 국가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수출규모가 큰 교역상대국임.
- 대브라질 교역규모는 2013년 153억 달러, 2014년 139억 달러로 감소추세이며, 브라질 경기침체 심화가 자동차 내수시장 판매 감소로 이어지며 2011년 최대 수출품목이었던 자동차(2014년 5위 수출품목)의 경우 동 기간 수출규모가 각각 46%, 6.5% 감소함.
- 2015년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해외직접투자는 267건, 60억 달러(투자누계 기준)를 기록함.
 - 투자업종으로는 제조업(54%), 광업(28.4%), 금융 및 보험업(9.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V. 종합의견

- 소비부진, 유가하락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브라질의 국제신인도 저하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2015년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망됨.
- 재정적자 누적 등으로 공공부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GDP 대비 60.4%를 기록하였으나, 풍부한 외환보유액은 외부충격으로부터 버퍼 역할을 하고 있음.
- 2014년 10월말 대선에서 호세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에너지공기업인 페트로브라스 뇌물수수 사건에 여당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한자리수로 급락하고,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대통령 탄핵 시위가 발생함.
- 경기침체 지속, 재정수지 적자 누적, 대외신인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외채비중,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조현수(☎02-6255-5712)

E-mail: hsc@koreaexim.go.kr